

시민과 함께한 17년 시민과 같이 가는 인천도시공사



꿈의책방 4호점 개소식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은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 이래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모토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시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기 넘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원도심 주거취약지역 경관 개선, 리모델링 등 도시 재생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 '생동감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생기 있는 동네 만들기 감동 프로젝트'의 약칭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원도심의 경관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말 그대로 기존의 동네를 생동감 넘치는 동네로 탈바꿈시키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원도심 거주 아동들의 지적 호기심 해소를 위한 '꿈의 책방'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과 공간 구축을 통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꿈의 책방' 사업은 현재 6호점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책방 조성

을 위한 재원은 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과 회사가 동액의 기부금을 매칭하는 '매칭 기프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또 청년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양극화 해소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생과 나눔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업체와 공사 구매담당자 간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해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판로지원 및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검단산업단지 내 청년 소셜창업 거점 시설인 '코코아'(Co-Cooperation Agiti)의 운영 공간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기업가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공사 소유인 인천 서구 오류동 블루텍 건물 2층을 활용한 청년 창업보육 공간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가 집중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다른 한 분야는 주거복지다. 공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이 생동감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이 희망의꽃 나눔행사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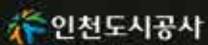
사의 주력사업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물리적 공간 확충과 동시에 기존 선학영구임대아파트, 연수영구임대아파트, 연희국민임대아파트, 청학장기전세아파트 등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위기가정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가 관리 중인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총 6천 873세대 중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에 긴급지원금을 주고 있다.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한 내·외부 의견 수렴과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뤄진 결과다. 체계적인 사회공헌의 중요성과 의무를 인지하고 각종 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공사는 발로 뛰는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 조직 '헤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단은 공사의 나눔 활동 첨병 역할을 하며, 지난해 누적 봉사 시간 1천751시간을 기록해 공사 사회공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갈등 발생 시 조정자 역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나는 도시를 개발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김단신도시, 도화구역, 영종하늘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주영춘
도시개발본부
개발사업1팀 부장